

푸른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립26주년 고객만족 최우선 기업 동양종합건설(주)



동양종합건설(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
T 053-562-4400 F 053-552-9222

푸른신문

세무사 정수득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정 수 득 H.P 010-8773-3910
양도소득세 등 조세컨설팅, 신속중개
매물항상접수, 공동중개 환영
등록번호 27290-2020-00170
T.053-568-4600 F.053-568-4601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제 1,142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달성 지역신문
www.prsimun.co.kr

성서최고의 휘트니스클럽
미코 SP LEX
MIGWANGSPO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593-9990~7
신관, 골프장&스키클럽: 053) 584-0775

헬스 연강회원 댄스·요가·필라테스·스피닝 무료수강!
사우나 헬스 100% 참나무 찹쌀가마
24시간 **골프 연습장** 스크린
휴림원 300대 주차장 완비!
☎ 585-0100
대신역 2번 출구 대백마트 뒷편

포장이사 전문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수성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곡점 611-7824 화원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지면안내»

- 창간 20주년 > 03면 >
- 20주년 특집 > 04면 >
- 지역 > 05~9면 >
- 고령·성주 > 12~13면 >
- 지역사랑 파트너 > 15면 >
- 종합 > 16~19면 >
- 기고 > 20~21면 >
- 교육·문화 > 23~27면 >
- 건강 > 28~29면 >
- 운세·날씨 > 30면 >
- 퍼즐 > 31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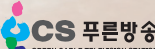
푸른신문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달서 달성의 미래를 밝힙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의 문화를 대변해 온 푸른신문이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뜨거운 성원 속에 창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푸른신문은 지역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푸른신문은 이러한 사랑에 부응하여 창간 2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달서구의 미래와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첨단 경제와 명품 관광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달성군의 미래에도 힘이 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푸른신문은 사람 중심의 기사, 밝고 건전한 뉴스를 더 많이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건강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지역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푸른신문 임직원 일동 -



명품화질로 선명하게 즐기는
푸른방송 채널 편성표

우리지역 대표채널 No.1
푸른방송 Ch.1

HD국민형방송 채널표

번호	채널명	장르
1~1	푸른방송	지역채널
2~1	EBS플러스1	교육
3~1	EBS플러스2	교육
5~1	tvN	오락
6~1	EBS	지상파
6~2	EBS2	지상파
7~1	KBS2	지상파
8~1	CJ오쇼핑	홈쇼핑
9~1	KBS1	지상파
10~1	롯데홈쇼핑	홈쇼핑
11~1	MBC	지상파
12~1	GS SHOP	홈쇼핑
13~1	TBC/SBS	지상파
14~1	NS홈쇼핑	홈쇼핑
15~1	현대홈쇼핑	홈쇼핑
16~1	홈플러스쇼핑	홈쇼핑
17~1	JTBC	중편
18~1	채널A	중편
19~1	TV조선	중편
20~1	MBN	중편
21~1	공영쇼핑	홈쇼핑
22~1	SBS CNBC	경제
23~1	연합뉴스TV	보도

디지털케이블방송 채널표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E	0	케이블 TV VOD HD	가이드
E	1	푸른방송	지역채널
E	2	EBS2 HD	지상파
B	3	MBC에브리원 HD	오락
E	4	소핑엔티 HD	홈쇼핑
E	5	TBC/SBS HD	지상파
E	6	GS SHOP HD	홈쇼핑
E	7	KBS2 HD	지상파
E	8	CJ오쇼핑 HD	홈쇼핑
E	9	KBS1 HD	지상파
E	10	롯데홈쇼핑 HD	홈쇼핑
E	11	MBC HD	지상파
E	12	NS홈쇼핑 HD	홈쇼핑
E	13	현대홈쇼핑 HD	홈쇼핑
E	14	JTBC HD	중편
E	15	EBS HD	지상파
E	16	MBN HD	중편
E	17	홈플러스쇼핑 HD	홈쇼핑
E	18	채널A HD	중편
E	19	TV조선 HD	중편
E	20	tvN HD	오락
E	21	공영쇼핑 HD	홈쇼핑
E	22	신세계쇼핑 HD	홈쇼핑
E	23	연합뉴스TV HD	보도
E	24	YTN HD	보도
E	25	OCN HD	영화
E	26	XtvN HD	오락
E	27	Mnet HD	음악
E	28	드라마맥스 HD	드라마
E	29	E채널 HD	오락
E	30	OCN무비즈 HD	영화
유료	31	캐치온1 HD	영화
E	32	OCN스릴즈 HD	영화
E	33	O tvn HD	여성
E	34	스크린 HD	영화
E	35	채널DIA HD	오락
B	36	AXN HD	영화
B	37	Mplex HD	영화
E	39	SBS플러스 HD	오락
E	40	K쇼핑 HD	홈쇼핑
E	41	KBS드라마 HD	드라마
E	42	W쇼핑 HD	홈쇼핑
E	43	MBC드라마넷 HD	드라마
B	44	JTBC2 HD	오락
E	45	SK stoa HD	홈쇼핑
B	46	드라마큐브 HD	드라마
E	48	올리브 HD	여성
E	49	온스타일 HD	여성
B	50	JTBC4 HD	영화
E	51	CNTV HD	드라마
E	52	드라마H HD	드라마
B	53	디원	오락
B	54	티브이조선2 HD	정보

번호	채널명	장르
24~1	YTN	보도
25~1	한국경제TV	경제
26~1	MBC에브리원	오락
26~2	MBC ON	오락
27~1	Mnet	음악
27~2	채널DIA	오락
28~1	코미디TV	오락
29~1	XtvN	오락
30~1	스크린	영화
30~2	인디빌름	영화
31~1	OCN	영화
32~1	OCN무비즈	영화
32~2	Mplex	영화
33~1	CNTV	드라마
34~1	K Star	오락
35~1	하이라이트TV	오락
36~1	JTBC2	오락
36~2	JTBC4	여성
37~1	CMCTV	오락
37~2	채널이엠티	오락
38~1	KBS JOY	오락
39~1	디원	오락
39~2	Fun TV	오락

번호	채널명	장르
40~1	SBS플러스	오락
41~1	드라마맥스	드라마
42~1	KBS드라마	드라마
43~1	MBC드라마넷	드라마
44~1	JTBC골프	스포츠
45~1	SBS스포츠	스포츠
45~2	SBS골프	스포츠
46~1	KBSN Sports	스포츠
46~2	SPOTV	스포츠
47~1	MBC스포츠+	스포츠
48~1	스카이스포츠	스포츠
49~1	FTV	취미
50~1	투니버스	키즈/만화
51~1	JEI재능TV	키즈/만화
52~1	챔프	키즈/만화
52~2	애니맥스	키즈/만화
53~1	애니박스	키즈/만화
54~1	O tvN	여성
54~2	OGN	게임
55~1	리얼TV	오락
56~1	채널자이나	해외드라마
57~1	내셔널지오그래픽	해외다큐
58~1	SBS funE	오락

※2020. 09. 14 기준

번호	채널명	장르
59~1	온스타일	여성
60~1	EDGE TV	오락
61~1	KBS W	여성
62~1	올리브	여성
63~1	아이넷	음악
64~1	이벤트TV	음악
65~1	GTV	여성
65~2	SBS MTV	음악
66~1	OCN스릴즈	영화
67~1	MBC M	음악
68~1	상생방송	종교
69~1	BTN불교TV	종교
70~1	가톨릭평화방송	종교
71~1	CTS기독교TV	종교
71~2	CBS	종교
72~1	한국직업방송	공익
73~1	복지TV	공익
74~1	사이언스TV	공익
95~1	OUN	공익
96~1	국회방송	공익
97~1	KTV	공익

※E : 이코노미(112) / B : 베이직(180) / P : 프리미엄(195) / 유료 : 유료채널(10)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B	116	K바둑 HD	취미
B	117	FTV HD	
B	118	Fishing TV HD	
P	119	발리어즈TV HD	해외 드라마
E	121	채널자이나 HD	
E	122	중화TV HD	
B	123	채널J HD	오락
E	124	채널정 HD	
E	125	텔레노벨라 HD	
B	127	HO+ HD	오락
B	129	Life U HD	
B	130	히스토리 HD	
B	131	실버아이 HD	교양
P	132	예술TV/ Arte HD	
P	133	FX HD	
B	134	코미디TV	오락
P	135	FX연예	
E	136	FOXlife HD	
E	137	TV아시아플러스 HD	게임
E	139	OGN HD	
E	140	STATV HD	
E	141	SBS스포츠 HD	스포츠
E	142	KBSN Sports HD	
E	143	MBC스포츠+ HD	
B	144	SBS골프 HD	스포츠
B	145	JTBC골프 HD	
E	146	JTBC GOLF&SPORTS HD	
E	147	스카이스포츠 HD	스포츠
B	148	IB Sports HD	
E	149	SPOTV HD	
E	150	SPOTV 2 HD	스포츠
E	151	SPOTV Golf&Health HD	
유료	152	SPOTV ON HD	
유료	153	SPOTV ON2 HD	스포츠
E	155	BTN불교TV HD	
E	156	BBS불교방송	
E	157	CBS HD	종교
E	158	CTS기독교TV HD	
P	159	CGN TV	
P	160	GOODTV	종교
E	161	가톨릭평화방송	
B	162	상생방송	
P	163	C Channel	여성
P	167	동아TV	
E	168	육아방송	
B	169	이엑스애프 플러스	오락
E	170	Lifetime	
B	171	헬스메디	
유료	174	앙글리사렘 HD	키즈/교육
B	175	디즈니채널 HD	
E	176	투니버스 HD	
B	177	애니맥스	키즈/만화
B	178	Baby TV HD	

가입문의 **551-2000** www.gcs.co.kr

창간 20주년 축하



달서구청장 이태훈

우리 지역 대표 언론사로서 주민들을 위한 알찬 정보제공과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푸른신문 창간 20주년을 60만 달서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푸른신문은 창간 이후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세대간 서로 소통하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언론 본연의 역할과 지역언론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푸른신문이 공정한 보도와 현장감 있는 소식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하고,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민들의 참다운 눈과 입, 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푸른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뉴미디어 시대! 더욱 더 발전하여 대구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여론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언론사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구의회 의장 윤권근

지역민과 함께하는 우리지역 대표 언론사로서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푸른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건전한 비판자의 역할도 함께 하는 언론의 기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론들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만의 색깔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언론사인 푸른신문도 달서구와 달성군 그리고 고령과 성주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어느 언론사보다 주민들 가까이서 밝고 건전한 뉴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올바른 비판기능과 여론형성으로 우리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쯔록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푸른신문이 지역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사회와 지역문화발전에 계속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0주년을 60만 달서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푸른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성군의회 의장 구자학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푸른신문의 창간 20주년을 27만 달성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푸른신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푸른신문은 창간 이후 민의의 진실한 대변자로 지역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 있는 보도와 알찬 정보로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든든한 밑거름인 만큼, 앞으로도 푸른신문이 지역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길잡이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동행하는 지역대표 언론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푸른신문 창간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푸른신문

03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수환

달서구·달성군 지역을 대표하는 ‘푸른신문사’의 창간 20주년을 남부 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역 교육과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신문으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신문’은 2000년 창간 이후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현안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데 앞장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과 소속 학교들의 교육 활동에 관한 기사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 지역사회의 공금함을 많이 해소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른신문’이 언론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풀뿌리 지역 언론의 모범이 되고, ‘사람 중심의 기사, 밝고 건전한 뉴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라는 편집 방향을 잘 실천하여 남부 교육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남부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남부 교육현장의 열정과 감동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남부 교육 성장의 현장에도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푸른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구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철

지역민과 함께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푸른신문의 창간 20주년을 달성교육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래 지역 주민들의 교육, 경제, 사회, 행정, 문화 등 생활전반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 나눔에 앞장서 주신 조강래 발행인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오늘날, 푸른신문은 달서구 및 달성군과 그 인근 지역의 알음신잔(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잡다 정보)의 기사로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정보와 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기관, 각급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 및 행사를 소개하여 주민들과의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에 따른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관련 기사는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학생, 학부모님께 지친 마음과 불안함을 극복하는 마음의 백신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푸른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선도적 신문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효율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053-572-6000

< 가요 속 어머니 >

언제나 감동 ‘어머니 노래’

“어머니,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숲길에 짙어지자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아들이 내 아들이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장사익의 노래 ‘꽃구경’은 아들에 의해 버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이 걱정되어 솔잎을 뿌리는 어머니를 노래한다. 절절한 멜로디와 가슴 아픈 가사로 많은 이들을 울리고 있는 노래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 지는 노래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이런 존재이다. 예나 지금이나 늘 자신이라는 안위보다 오직 자식을 위한 희생만 있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다. 모든 걸 다 주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감동 때문에 우리 가요 100년사에도 어머니는 빼 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1940년 취임한 불효자는 읍니다(진방남)부터 모정의 세월(한세일), 어머니(남진), 그

리온 어머니(강인엽), 어머니께(지오디), 흙시, 어매(나훈아), 엄마라디), 올엄마(정원수) 등을 거쳐 2019년 발표된 엄마아리랑(송가인)까지. 어머니를 주제로 하는 노래는 우리 가요 100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노래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부르는 가수가 달라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우리 가요는 때로는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는 가사로, 때로는 사무치게 그리운 멜로디로 듣는 사람의 가슴에 어머니를 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효자는 읍니다’는 우리 아버지들의 단골 술안주로 등장하던 노래였다.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로 시작되는 ‘그리운 어머니’는 군 분대 위문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 삽입곡으로 1990년대 군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어머니는 자정면이 싫다고 하셨어’… 지오디가 부를 때마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들었던 노래다. ‘생각이 난다 흙시가 열리면 올엄마가 생각이 난다’… 듣는 사람을 애절하게 만들었던 이 노래는 지금도 가

족 모임에서 많이 불리고 있다.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는 어머니를 위한 헌정곡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다.

파란의 현대사를 짊어져 온 ‘어머니’도,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 ‘엄마’도 모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특히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대명사이다. 우리 가요는 그런 어머니를 노랫말로 표현함으로써 시나 소설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어머니가 주신 사랑가 희생에 대해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회한이 눈물로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의 희생의 크기를 잘 수 없듯이 그에 대한 보은도 한계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 한다.

‘늦기 전에, 늦기 전에’ ‘효도 합시다’라는 노래가 컷전을 올린다.

푸른신문 창간 20주년 기획

‘어머니’를 불러 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까이 계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또 내가 힘들 때도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지키며 응원해 주셨지요. 늘 그 자리에 계셨기에 당연히다 생각했던 어머니. 정작 너무 편안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더 그리운 이롭습니다.

푸른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어머니’를 불러 봅니다.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이자 어려울수록 더 생각나는 우리의 ‘어머니’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푸른신문과 함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푸른신문이 내 마음속의 ‘어머니’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나누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를 추억하는 이야기, 어머니께 쓰는 편지도 좋고 엄마가 된 나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글 솜씨가 없어도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글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담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 주제 : 어머니와의 추억, 엄마로서의 느낌
- 형식 : 시, 수필 또는 편지 등 자유 형식

▶보내실 곳
푸른신문 편집국 (053) 572-6000 E-mail: pr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참고 사항
• 원고 분량은 최대 2,000자 이내(띄어쓰기 포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 주소(가나다로), 연락처, 사진(소개는 200x200 및 300x300mm 이하) 및 친화성 있는 사진, 관련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는 문구는 소정의 기금품들을 드립니다.

지역



월광수변공원 가을 정경

월광수변공원, 대구수목원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월광수변공원과 대구수목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로 개발·가족단위 위주 테마 관광지, 자연환경이 중심인 관광지, 단풍·가을 테마에 부합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월광수변공원은 청룡산자락 도원저수지 주변에 조성된 공원으로 복숭아나무 등 40종 2만 1,922본의 향토수종이 식재되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결혼 정책1번지’인 달서구를 상징하듯 공원내 사람의 길과 프로포즈 조형물 등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월광수변공원내 도원지에서 지난해 수달가족이 발견된 이후, 지난 9월 아가수달이 발견되기도 했다.

대구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다양한 식물종이 서식하는 대구 시민의 휴식공간이다. 계절별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야생조화원, 약용식물관, 죽림원 등

21개의 주제를 가진 전문 수목원으로 1,750종 45만본의 식물이 전시되어 있는 도심속 휴식처이자 자연학습장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구에는 월광수변공원, 대구수목원 이외에도 맹꽁이생태공원인 대명유수지,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등 비대면 관광에 적합한 곳이 산재해 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달서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아는 만큼 지키는 청년의 권리

달서구 청년학교 운영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0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청 회의실에서 지역청년 60명을 대상으로 ‘달서구 청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서구 청년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도움이 되는 필수노동법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연수원 노동법교육 전문강사 이상영 노동사가 강의한다.

이번 특강은 지난 8월 위촉된 ‘제2기 달서구 청청기획단’ 단원들이 회의를 통해 과목을 선정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등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년이 만들어보는 청년특

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달서구는 청년사업을 발굴·홍보하는 ‘달서구 청청기획단’과 청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해내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사회활동 활성화에 앞장서가고 있

다. 특히, 청년정책 5대 전략 중심 주제별 테이블 토론 및 정책제안을 하는 ‘2020 달서구 청년포럼’ 개최 등 청년들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 관리 · 사무직

사업제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대이알미브 053-583-1881	총무 및 일반 사무원	무관	월 180만 원 이상
일류산업 053-581-1638	영업기획 · 관리 · 지원사무원	전문학사 이상	연 2,200~2,300만 원
(주)한일포리머 053-583-4511	생산 ·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 · 자동차 · 금속)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사원(세무법인) 053-580-7200	경리 사무원 (회계 · 세무 사무소)	무관	연 2,500만 원 이상
두산2기(경북면매주) 053-526-7551	경리 사무원	고졸 이상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50%)

■ 기술 기능직

사업제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대진EVG 053-584-2859	자동차 부품 조립 · 검사원	무관	월 230만 원 이상
(주)삼우에이엘 053-598-8332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제이테크 053-583-4569	ONC 선반 조작원 (NC 선반 조작원)	무관	월 300만 원 이상
(주)두경산업 053-598-9588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무관	월 180~190만 원 (상여 90%)
대한레이저 053-588-6952	캐드캠 기능원	무관	월 250만 원 (상여 150%)
(주)티엠프라곤 053-588-1902	금형원	무관	연 3,350만 원 이상 (상여 300%)

■ 단순 생산직

사업제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베스틀 053-581-3883	인쇄, 목재,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8,600원
대구정밀(주) 053-582-7775	기계 · 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우림 053-582-252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600원
주식회사 한성알미늄 053-581-7770	제조 단순 종사원	고졸 이상	시급 8,590원 이상
(주)베르틀스톰 070-8638-4172	식물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55만 원 이상

■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제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베기산업(주) 053-592-0000	배송 · 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20만 원 이상
승리금속공업사 053-581-3311	배송 · 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월 200~220만 원
동신공업(주) 053-581-0585	배송 · 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연 2,500만 원 이상
(주)대림프라곤 053-588-1902	지게차 운전원	무관	연 2,850만 원 (상여 300%)
위너스페디칼주식회사 053-557-5559	의료장비 기술영업원	무관	연 2,400만 원 이상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08 www.work.go.kr/daeguseobu

자식

몇 년 전, 신문에 읽은 기사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인데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문제를 냈는데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영어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라는 문제였다.

아이들의 답안지는 놀라웠다. 학생들의 85%가 ‘Mother’라고 썼다고 한다. 선생님은 난감했다. 정답은 ‘Magnetic(자석)’이었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선생님은 마침내 ‘Mother’를 정답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우문현답이라고 하기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순수함이 느껴진 멋진 정답이었다. 선생님의 정답처리 역시 만점짜리다. 아마도 아이들은 ‘M’자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하자 어머니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에서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답을 확인 했으리라 추측해 본다.

스무 살쯤에 직장생활을 위해 고향 집을 떠나 대구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었다. 스산한 가을

썰쭉한 토요일 오후였다. 회사를 마치고 나오는 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 고향집을 갈까 말까 망설였다. 왕복 차비를 쓰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다. 괜히 거리를 방황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날씨가 금방 어둑어둑해졌다. 어두워지니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급히 시외정류장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갔다. 막차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기사 아저씨는 오늘따라 느긋하다. 버스에서 내려자마자 매표소를 향해 힘껏 뛰었다. 하지만 이미 매표소의 창구는 닫혀있었다. 흠시나 하는 마음에 시외버스 승강장까지 가보았지만 막차는 이미 떠난 뒤였고 매캐한 매연 냄새만 가득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그곳을 한참 서성이다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자취방 골목에 들어서니 된장 냄새가 골목 가득하다. 그제서야 시장기가 느껴졌다. 일론 저녁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대문을 들어서는데 어찌 된 일인지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침에 불을 안 켜나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순간, 핫케이크를 본 듯 정신이 혼미했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 주신다.

“토요일인데 어째 이래 늦게 왔어. 어디 갔다 오냐?”

엄마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려놓은 밥상에 고개를 박고 된장으로 밥 한 그릇 비웠다.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제야 모기만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만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품안에서 젖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따뜻한 눈빛이다. 여인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도 내 품속에서 새록새록 잠든 아기를 앉고 있을 때가 아닐까 싶다. 우리들의 영원한 믿음이며 필요가 아닌 인연으로 자식처럼 한없이 끌어주는 어머니라는 이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며 존재만으로 충분한 우리들의 천국이다.

이윤영(달성군 화원읍)



가로휴지통에 디자인을 입히다

가로휴지통의 변화, 청소와 구정홍보 한꺼번에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테이크아웃 음료 컵과 Pet 병을 버릴 수 있는 가로휴지통에 구정홍보 디자인을 덧붙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상인현대맨션앞 버스정류장, 용산역(1번출구) 버스정류장, 서부정류장(관문시장건너) 버스정류장에 각 1개씩 설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1회용품 음료수를 들고 버스타습승이 금지됨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달서구는 지난해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가로휴지통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로휴지통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하여 구의 중요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추진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가로휴지통은 스테인레스 재질(높이 120cm 폭65cm)의 하얀색 커피컵 모양으로, 바깥에는 달서구를 대표하는 월광수변공원과 달서별빛캠핑장 등 구의 정책을 디자인하여 일석이조



달서구 가로휴지통 변화

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가로휴지통의 기능에 구정홍보 기능이

지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월암동 입석 Ⅲ호, 짝궁 찾아 이사

달서구, 긴급발굴조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훼손의 위험성이 높았던 월암동 입석Ⅲ호를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인근 선돌공원으로 10월말 이전·복원한다.

달서구는 유적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월암동 입석Ⅲ호의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밀발굴조사에서 입석Ⅲ호는 원 위치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아쉽게도 유물이나 다른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과 문화재청에서는 입석Ⅲ호의 학술적 가치가 높고 잔존상태가 좋으나, 좁은 도로변에 있

어 훼손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달서구와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인근 공원으로 이전 방안을 제시하였고, 문화재청의 최종승인에 의해 입석Ⅱ호가 위치한 선돌공원 내로 이전복원하여 보존 및 활용한다.

입석은 청동기시대 마을경계를 나타내는 시설로 알려져



월암동 입석Ⅲ호 전문가 검토회의 모습

있다. 특히, 달서구에는 입석이 많기로 유명하다. 사적 제411호로 지정된 진천동 입석을 비롯하여 월암동의 입석 3

기는 청동기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남아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공사장 외벽은 미술 공간으로 변신 중

달서구 일대는 요즘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뿐 아니라 상업 시설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 많다. 많은 공사현장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 다른 현장과 달리 공사장 외벽에 갖가지 사진이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공사장 외벽이 워낙에 넓어 사진도 거대한데다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속에 위치하여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공사현장은 건설 작업으로 인해 소음이나 먼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애물단지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6m에서 크게는 8m에 달하는 공사장 펜스에 대규모에 가볼 만한 관광지 사진을 크게 인쇄하여 보여준다면 불조심이나 안

전사고 예방법과 같은 공익광고를 나타내 사회적으로 유의한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다.

공사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4년이 걸리기도 하니 향후 몇 년 동안은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적 공간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 컬러 구성 또한 주변의 지형지물을 고려해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차분한 색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는 안내판과 대구의 특산물을 나타낸 사진은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여러 점 설치하여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신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문을 이용하며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이보다



공사장 펜스

더 큰 전시공간과 그림 크기가 있을 까 싶다.

공사장 먼지와 기타 소음을 줄이기 위해 펜스는 꼭 필요하며 나아가 공사현장으로부터 행인을 지키는 안전벽의 역할도 겸한다. 거거다가

이제는 도심 속 거대한 ‘하얀 도화지’ 역할까지 하니 혹시나 지나가다 그림이나 사진이 인쇄된 펜스를 보면 발길을 멈추고 한 번쯤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싶다.

이원욱 객원기자

‘건강을 위해 달린다’ 사단법인 대구마라톤 협회 달성지부

화원에 있는 명곡체육공원에 가보면 차가운 가을날씨에도 불구하고 핫팬츠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뛰고 있는 사단법인 대구마라톤 협회 달성지부 회원들을 만날 수 있다. 주중에는 화·목 오후 7시 30분, 일요일에는 오전 6시에 명곡체육공원에 모여 마라톤 연습을 한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단체훈련을 못하다가 9월부터 다시 모여 함께 운동하고 있다. 대구마라톤협회에는 10개의 지부가 있는데 달성지부에는 약 4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부부회원도 많고 특히 여성회원들이 많은데 모두들 군살이 하나도 없는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자랑하

고 있다.

회원 중에는 다이어트나 건강달리기를 목적으로 뛰는 사람도 있지만 완주를 100회 이상 하고 기록도 2시간 30분대에 나오는 거의 프로선수 같은 회원들도 있다. 달성지부장을 맡고 있는 장대성씨도 12회 정도 완주를 했고 기록도 3시간 안에 들어오는 만만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다. 한 때는 등산도 즐겼고 산악자전거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져있으면서 마라톤의 매력을 끝도 없이 얘기한다.

마라톤을 오래 하면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다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절대 그렇

지 않다고 한다. 지부장님도 예전에 속리산에서 하산하다 무릎을 다쳐 엄혀서 내려왔지만 관절이 많이 좋아졌고, 다른 회원 중에도 디스크 수술 후에 꾸준히 마라톤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달리는 게 문제지 충분한 워밍업을 하고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본인의 체력에 맞춰 달리면 절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단다.

흔히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한다. 어제보다 기록을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원하는 기록을 얻었을 때의 성취감과 희열은 정

말 짜릿하다고 한다. 특히 극도로 힘든 구간을 넘어서면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희열인러너스 하이(Runners' High)의 쾌감과 성취감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주 동아마라톤 대회나 춘천마라톤 대회 같은 큰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아쉽지만 매년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는 식단조절도 철저하게 한다. 며칠간은 소금기가 전혀 없는 고기만 먹고 그 다음은 탄수화물만 섭취해서 근육만 남기고 살을 쏙 빼서 몸상태를 최

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혼자 뛰는 사람은(그들 세

계에선 이들을 독립군이라고 부른다)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서로 격려 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쉽게 지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왕 달릴 거면 반드시 협회 가입을 추천한다. 다이어트를 위한 최고의 운동이고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환영한다는 지부장님의 권유에 귀가 솔깃해진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면서 확~찢자 되어 우울해져 있다면 날씬한 몸매와 건강을 위해 달성지부에서 우리 함께 달려볼까요?

서순옥 객원기자



인 후원자를 모집할 예정이

다. 이태훈 구청장은 “성매이마을 공유냉장고 사업에 참여해 주신 기관 및 업체,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

나눔을 통해 이웃 간 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음식 공유 문화가 달성구 전체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군 휴양림 이용객 픽업서비스 실시

고객을 찾아가는 ‘休-타다’로 서비스 혁신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화원자연휴양림은 오는 11월 2일부터 차량 미소유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픽업서비스인 ‘休-타다’를 시행한다. ‘휴양림을 타다’, ‘휴식을 타다’라는 의미의 ‘休-타다’는 평일 한정으로 일일 4회(입·퇴실 각 2회) 차량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입실 3일 전까지 유선(053-659-4455)으로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休-타다’ 픽업서비스는 평소 차량 미소유로 휴양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노인 등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의견 청취, 내부회의, 과제도출 등 서비스 개선 과정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한다.

노선은 대곡역 3번 출구-화원자연휴양림 구간으로 운영되며, 대곡역 출발 2회(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휴양림 출발 2회(오전 11시 / 오후 2시)로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화원자연휴양림에서는 산림복지 소외대상 이용환경 개선 서비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 전용 객실 운영과 다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군민 등 대상별 상시적 할인 제도를 마련하여 적용 중이다. 강순환 이사장은 “2020년도 공단의 핵심 가치인 3C(변화혁신, 소통융합, 고객중심) 실천으로 고객과 동행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이 헌연열체가 되어 문화와 관광을 선도하는 1등 공기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군 언택트 관광지 급부상

송해공원, 사문진주막촌 등 관광객 증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면서 가을철 나들이 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달성군의 언택트(비대면) 관광지가 각광받고 있다.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자체 조사 결과 달성군의 10월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4%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람들이 봄비를 피하고 산·물레길·숲·공원 등 자연에서 휴양하는 형태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송해공원과 사문진주막촌은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각각 선정되어 자연에서의 힐링과 함께 가벼운 도보코스도 각광

받고 있다.

송해공원은 65만 7,000㎡면적의 공원에 수상 탐방로, 조명분수, 출렁다리 등 여러 시설을 갖춰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최초의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주막촌은 옛 보부상 헛터를 복원한 주막촌 및 500년 된 갯나무와 함께 생태탐방로가 있어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동서원은 지난해 유네스코 등재 이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 사태에도 안전한 여행 트렌드에 맞는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가을



도동서원 은행나무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언택트 관광지를 계속 개발할 것”

이라며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변점식 기자

음식 공유로 가족(마을공동체) 만들어요

달서구, 성매이 마을 공유냉장고 오픈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21일 성당동 회령학습마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식재료를 기부하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성매이 마을 공유냉장고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당동 나눔협동조합이 주관한 공유냉장고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자원과 사업을 발굴·활용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달서구 제1호 공유냉장고이다. 공유냉장고에 기부된 식재료는 방과 후 돌봄을 받고 있는 초등저학년 학생들과 독거노인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서구는 대구시로부터 ‘공유 밥상과 공유 냉장고로 성매이 식구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

했고, 성당동 나눔협동조합과 함께 성당동 지역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공유 밥상 및 돌봄 사업’, ‘공유냉장고 사업’ 및 ‘반찬 나눔 사업’ 등을 운영한다.

앞으로 달서구는 나눔협동조합과 함께 공유냉장고 활성화 위해 정기 후원 업체, 자원봉사자,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정기적



송은석 대구문화관광해설사 향토문화수기 부문 ‘우수상’ 수상

송은석(51) 대구문화관광해설사가 지난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제3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향토문화수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송 해설사의 ‘묘골·묘골·묘골 비밀의 문을 열다’가 사육신 박팽년 후손 집성촌인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골마을 지명유래설의 역사적 근거를 밝힌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송 해설사는 지역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현재 푸른신문에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을 연재 중이며, 달서구 문화원과 수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달성군 ‘호남국제관광박람회’ 우수 디자인상 수상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호남국제관광박람회’에서 비대면 힐링 관광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해 우수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박람회는 전국 지자체, 한국관광공사와 유관기관에서 350개 부스를 개관해 지역별 관광정보를 소개하고 지역별 대표축제, 지역특산물과 공예품을 홍보하며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달성군은 ‘2020 대한민국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송해공원과 사문진주막촌의 포도존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주요관광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물렛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에게 기념품 및 관광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토닥토닥 안부전화 걸어드리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사회공헌활동 ‘토닥토닥 안부전화 걸어드리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홀몸 어르신에게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지역 복지시설(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원 봉사자와 어르신의 1대 1 매칭을 마쳤다. 〈자료제공: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성공의 열쇠! 푸른방송 TV광고입니다.

방송광고 하나로 지역신문, SNS광고까지
모든 광고를 한번에 누리는 통합 마케팅 솔루션!
이제, 푸른방송과 함께 실속있고 합리적으로 광고하세요.



우리지역 채널 No.1 푸른방송 Ch.1
053) 551-2000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진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o.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 (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섀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뿔났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이슬아슬한 시사회!

▶ JTBC 일요일 밤 7:40



모든 집에는 주인장도 모르는 물건들이 산다?
언젠가 쓸 거 같아서... 버려지니 아까워서...
팔자니 귀찮아서...?
당신의 집에 잠든 물건,
'유랑마켓'이 대신 팔아드립니다.
스타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동네 주민과 직거래하며
이웃과의 훈훈한 나눔과 소통을 통해
잠든 물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환상적인 멜로 판타지의 주인공, 남자구미호

그동안 드라마에 나왔던 구미호는 대부분, 사랑스러운 여자 구미호들이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자 구미호다. 당장 간이라도 빼주고 싶게 만드는 신비한 얼굴로, 오직 한 여자를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순정남. 구미호 "이연"은 여성들이 꿈꾸는 가장 동양적인 판타지가 될 것이다!

구전동화속 주인공들이 돌아온다! '모던' 한 옷을 입고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액션물

새로운 무술과 CG 시퀀스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독특한 비주얼의 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레미 집 없는 아이

인생 멘토와 함께 꿈과 가족을 찾아 떠난 소년의 아주 특별한 여행!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노래하던 레미는 어느 날 자신의 출생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줄 단서를 알게 되는데...
고연, 레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언더워터

해저 11km,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 깨어났다! 어두운 심해에 무언가 그들을 바깥 따라오고 있다. 불가사의한 포식자와 쫓고 쫓기는 위험천만한 게임에 갇혀버린 대원들. 살아남기 위해선 남은 용기를 전부 쥐어 짜내야만 한다. 살고 싶다면 모든 감각을 깨워라!



시청방법 ▶▶
메뉴 → VOD나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

10월 30~31일 밤 지산동 고분군 일원에서

‘2020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夜行)’이 30~31일 오후 6시부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령군이 주최하고 고령문화원이 주관하며, 문화재청과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야경(夜景)에는 지산동 고분군 야경 외 4개 프로그램, 야로(夜路)에는 달빛고분산책 외 1개 프로그램, 야사(夜史)에는 가야금소리마당 외 1개 프로그램, 야화(夜畵)에는

고령갤러리 외 1개 프로그램, 야설(夜說)에는 현의노래 외 1개 프로그램, 야시(夜市)에는 야한 포도밭 외 2개 프로그램, 야숙(夜宿)에는 월하야숙 외 2개 프로그램 등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야행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코드 인종절차가 필수이며, 인기 유튜브와 함께하는 랜선 야행 운영을 통하여



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54-954-2347 <자료제공:고령군청>

아동급식 전자카드 시행 추진

고령군, 아동급식카드 이용 대상업소 모집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관내 결식우려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인한 단체급식소 미운영시 가맹점을 통한 원활한 급식업무를 지원하고, 현행 종이 식품권을 ‘급식 전자카드(경북참사랑카드)’로 변경함으로써 종이식품권 인쇄 예산을 절감하고 급식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일반, 중식, 양식, 분식, 치킨 등), 마트, 부식가게(슈퍼) 등을 대상으로 신규 아동급식카드 이용 대상업소를 집중모집(10. 26~11. 23.)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

는 영업점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절차를 거쳐 고령군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급식대상 아동은 전자카드 시스템(참사랑카드 홈페이지)을 통해 기호에 따라 이용가능한 지역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고, 관리자는 실시간 사용내역을 전자카드 시스템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상황변동에 따른 탄력적 사업운영으로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대상자 외에는 무단사용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판매 금지품목(주류, 담배 등) 및 금지품목 이외의 품목은 아동급식 전자카드로 결제할 수 없고, 적발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고령군, ‘골목골목 복지나눔’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골목골목 복지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은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보건·주거·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관점에서 연계하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재

호)가 주관하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령군자원봉사센터, 민간 봉사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원예치료, 장수사진촬영, 희망칼라게어(방역 및 집수리), 이동세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관광 경쟁력 높인다

즐겁고 안전한 언택트 관광성주 이미지 구축

성주군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위드(with) 코로나시대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청정하고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과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트렌드에 맞춘 개별, 소규모 자유여행객 유치를 위하여 분산형·비대면·비접촉 언택트관광과 프로그램·콘텐츠 등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여행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규모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관광수용태세 분야를 중점 개선하고 있다. 특히 ▲여행자센터 설치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설치 ▲음식업·숙박업 시설환경 개선 추진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배치 ▲관광지도 안내



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해소를 위해 주요관광지 4개소(성박숲, 한개마을, 세종대왕자태실문화관, 가야산생태탐방원)에 관광지 방

역·관리요원 배치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즐겁고 안전한 성주관광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청정하고 즐겁고 안전한 언택트 성주관광을 알리고 코로나 세 일상

성주군 경북 정보화 경진대회 ‘종합 대상’

2020년 경북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식이 21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경상북도 정보화농업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농촌의 정보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개인 경진 4

성과 경진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며 총 3개 부문 4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해조 정보화농업인 성주군지회장은 “ICT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한 노력해 온 것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며 성주군 농업인들의 뛰어난 정보화능



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

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제1호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성주놀벤저스’ 개장

제1호 성주군 어린이놀이터인 ‘성주놀벤저스’가 개장하여 이용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성주놀벤저스 어린이놀이터’는 아동참여단 및 주민협의체와 함께 계획하였으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놀이요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약 3,000㎡의 부지에 짚라인, 트램폴린, 대형미끄럼틀, 흔들다리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되어 있으며, 유아놀이공간에는 질 좋은 모래놀이장 및 그늘막 등이 설치되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과 쉼터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지 내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가을학기 프로그램 운영

멋진 가을을 신나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성주군(군수 이병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8회) 가을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모집 수요에 따라 4종(방송댄스, 요리교실, 원예교실, 캘리그라피)으로 운영하는데 초·중등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하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제고와 잠재된 재능과 역량을 개발하

고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기다려온 만큼 다양하고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이용 인원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은 2013년 4월에 개관하여 매일 평균 4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

하고 있으며, 매학기별 토요일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여성가족부 주관 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공모사업 전국 6개소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세바칭(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바로 우리가 간다!’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054)930-6882~6885 또는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 <자료제공:성주군청>

GCS CULTURE CENTER 푸른방송 문화센터

AUTUMN, 2020

10 · 11월 추가 회원모집

/ 강좌기간 10월 5일(월) ~ 11월 30일(월)
접수문의 565-0877~8

미 술

월요수채화 / 화요 서양화 / 수요일 수채화
수요일 저녁서양화 / 공예 인몰화
한국화 / 보타니컬아트

건강 · 운동

플렉스 요가(오전 · 저녁) / 저녁 필라테스
한국무용&우리춤 / 라인댄스 / 댄스스포츠

전문지도자과정

시창작교실 / 커피바리스타 2급

음 악

지속미의 가곡교실 / 드럼 / 오카리나 / 하모니카

취미 · 교양

힐링 시낭송 / DIY생활가구 / 차와 힐링

지역사랑 파트너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종독 농아버섯백숙
 * 농아버섯오리백숙 ₩55,000
 * 농아버섯닭백숙 ₩50,000
 * 농아버섯곰탕 ₩110,000
 * 농아버섯탕 ₩12,000
 T.635-3434
 달성군 화원읍 인내리 205
 화원상가리 복지타운 내

기타(타구)지역

커피두더지로부터
진짜 커피를 만나다
 중점명 커피두더지로부터
카페 두더지 알콩산점
 대구시 파계로 596 053.981.1359

리빙

도배 · 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본동 970

기타

Q 24시
타이, 아로마 마사지
 T.(053)636-5238
 달서구 상인서로 20 (4층)
 (구, 상인나이트 건너편)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945-2302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5

중고물품 판매합니다.
 전집(전래, 명작 등), 인형, 장남갑
 다수 보유. 가격조정 / 직접방문필!
 문의: 010-3424-8523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진로코칭북
**두근두근,
꿈과 마주하기**
 상담코칭센터 인투커리어 070-4306-1201

생민가 참숯가마
참숯 생삼겹살 맛집
 생민가 숯가마
☎ 053.852.0035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86-8

산골장어 · 아나고 전문점
 ☎ 053. 586. 9988
 달성군 다사읍 세전리 1599-1
새기장아라고
 새기장아라고!
 새기장아라고!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더욱 **'따뜻한 봉사'**
 터미널 무료급식(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및 물품 후원 조동철 이사장 010-9195-1878

인터넷 쇼핑몰 **"레드방"**
 저렴한 가격,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070-8911-7711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63 1층

공간과 사람들 건축/인테리어전문 010.2902.3097
 MODERN
DESIGN &
COZY
COMFORT
 스타일링위한 인테리어의 약속함

우리동네 구성구성,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 4
 우리동네 푸른방송 CS 푸른방송
 제보 및 가입 A/S **551-2000**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나쁨의 가치와 나쁨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푸른신문은 그 소중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
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 이야기(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 코로나 관
련 이야기(코로나 체험기, 코로나 블루 극복 등), 창업(개
업) 이야기,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취미...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
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
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r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 ▶보내는 방법
 • 형식은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
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시
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상영시간

- 1회 19:00
- 2회 21:10
- 3회 23:10



www.cine80.co.kr
 문의 : 984-8008

도심 속에서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추억의 가을길’ 26개소(68.6km) 선정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우울해져 있을 시민들을 위해 자연이 주는 위로와 편안함으로 힐링할 수 있는 ‘추억의 가을길’을 선정했다.

대구 지역은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까지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관련 자료에 따른 팔공산의 단풍 절정은 10월 30일경이다. 대구시는 단풍이 아름다운 길, 사색·산책하기에 좋은 길 등 도심에서 쉽게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추억의 가을길’로 선정했다.

드라이브를 즐기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팔공산 일대의 팔공로와 팔공산순환도로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의 단풍길로서 드라이브하기에 안성맞춤이며 드라이브와 더불어 팔공산 올레길과 갯바위 등산로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팔공산이 멀게 느껴지고 가족들과 함께 도심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걷고 싶다면 앞산 자락길을 추천한다. 앞산 자락길은 고산골(남구 봉덕동)에서 달비골(달서구 상인동)까지 산자락을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경사가 심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가을의 숲길을 만끽할 수 있다.

케이블카를 이용해 대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앞산전망대와 도

심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앞산 해넘이 전망대를 방문해 사진 한 장 남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을 즐기며 산책과 소풍을 즐기기에 대구스타디움, 대구수목원, 두류공원도 제격이다.

대구스타디움 일대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수목터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서편광장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하기 좋은 곳이다. 또 인근에 위치한 대구시립미술관에 둘러 미술작품도 감상해 볼 수 있다.

대구수목원에서는 입구 초소에서 유실수원까지 이어지는 마중길(테크로드)과 1주차장에서 양치식물원까지 이어지는 흙길산책로가 걷기에 좋으며 국화 전시로 가을 대표 볼거리를 제공한다.

두류공원에서는 야외음악당 일원의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수목터널을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거닐 수 있고 3km의 공원 순환도로를 따라 산책 또는 조깅, 자전거 타기도 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서구 그린웨이(대구의료원 일원), 북구 대학교, 침산로22길(삼성창조캠퍼스 북편), 달서구 상화로, 호산동 메타세쿼이아 숲길

♣ 2020년 추억의 가을길 운영 대상지

구분	위치	구간(종소)	연장	수종	비고		
계		26개소	68.6km				
드라이브 가을길	팔공산	팔공로	공산동~백안삼거리~도화교	7.6km	은행나무 등나무		
	팔공산	팔공산 순환도로	팔공CC삼거리~파계사삼거리	12.2km	단풍나무 왕벚나무		
	팔공산	갯바위 등산로	갯바위사설지구광장~관봉	2.0km	소나무 등		
가족산행 가을길	앞산	등산로 (큰골)	충훈탑~만수정~은적사	3.0km	참나무류 등		
		등산로 (고산골)	고산골 등산로 입구~고산골 관리사무소	0.7km	메타세쿼이아	고산골 공용공원	
		지락길	고산골~큰골~안지랑골~달비골	15.0km	상수리나무 등		
가족소풍, 데이트 가을길	대구 스타 디움	스타디움 서편광장	야외공연장~산책로	0.5km	느티나무, 왕벚나무	대구시립 미술관	
		유니버시아 드로	백안삼거리~경산시경계 (대구스타디움 앞)	3.1km	느티나무		
		미술관로	대덕마을앞삼거리~월드컵로 종점	1.3km	느티나무		
	대구 수목원	마중길 (테크로드)	입구초소~유실수원	1.0km	느티나무 등	국화전시 (10.말~11.초)	
		흙길 산책로	1주차장~양치식물원	2.0km	복자기, 단풍나무 등		
		흙길 산책로	수목원 3로~수목원 3주차장	2.0km	소나무 등		
		두류 공원	산책로	두류도서관~사미루호계소 문화예술회관~두류수정장~금용사~시계탑	3.0km		느티나무 왕벚나무
	대영남로	앞산 카페거리	남평삼거리~대덕성당	0.7km	은행나무		
	용학로	산책로	호별수정~삼풍아파트	0.7km	왕벚나무	수성못	
	육포로	산책로	육연지 둘레길	3.5km	왕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송해공원	
도심 속 가을길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산책로	달구벌대중~조형분수	0.1km	단풍나무		
		2·28기념 중앙공원	산책로	관리사무실~동편 파고라	0.1km	단풍나무	대구시티투어 근대골목투어
		경상김영 공원	산책로	관리사무실~서편 파고라	0.1km	왕벚나무	
	달성공원	산책로	토성산책로	1.3km	느티나무 등		
		금호강 벚꽃길	아랑곡~공랑곡	1.3km	왕벚나무		
일상생활 가을길	서구 그린웨이	대구의료원~이현공원~서평초등학교	3.5km	느티나무 등			
	대학교로	경북대학교서문~북현오거리	1.5km	은행나무			
	침산로22길	삼성창조캠퍼스북편	0.4km	느티나무			
	상화로	진천남대거리~LH대구경북지역본부	1.5km	느티나무			
	호산동 메타세쿼이아	호산초등학교~호산근린공원	0.5km	메타세쿼이아			

들이 있다.

대구는 일부 구간의 경우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시민들

이 낙엽을 밟고 거닐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우수 숙박시설 ‘더 굿나잇’

대구시 11월까지 100곳 선정, 홍보 등 지원

대구는 각종 국제행사도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올 11월말까지 대구시 추천 우수 숙박시설 ‘더 굿나잇’을 선정한다.

‘더 굿나잇’ 선정은 2년마다 실시되며, 우수 숙박시설로 선정 받고자 하는 숙박업소(관광숙박업 제외)가 해당 소재지 구·군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본환경, 고객서비스, 시설환경 등 3개 부문 2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대구시는 선정된 우수 숙박시설에 대해 매년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선정된 업소는 대구시 추천 우수 숙박시설임을 알리는 ‘더 굿나잇’ 표지판이 부착되며, 대구시 숙박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 책자에 등재된다. 또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제행사 시 투숙객 우선추진 및 예약알선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디자인한다

강소농·청년농업인 위한 농가브랜딩교육 및 브랜드디자인 제작

대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숙결)는 강소농 및 청년농업인 7호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오는 다음달 13일까지 6회 과정으로 ‘농가브랜딩교육 및 브랜드디자인 제작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출하, 소비자 직거래 등이 많은 농가 중에서 강소농 대상자와 가업승계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과정은 1차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농가 자체 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농촌진흥청 디자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산물 포장디자인분야

전문가인 시우디자인센터 노시우 대표를 초청해 농가별 컨설팅을 통한 특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에 힘을

예정이다. 각 농가의 생각과 가치, 장단점, 환경 등 농가 개별 스토리를 기반으로 고객의 감성에 맞는 브랜드를 기획하고 포장 디자인을 구성하는 이번 과정은 농가 명함디자인에서부터 상품 포장디자인은 물론 직접 상표 출원까지 하게 되며 교육 마지막에는 개발한 상품을 직접 전시하는 작은 평가회도 갖게 된다.

지난해에는 강소농가 9호를 대상으로 개인별 자체브랜드



2019년 ‘대구연구소’

를 제작해 상용화하였으며, 강소농대전 출품 등 홍보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숙결 대구시농업기술센터



2019년 ‘칠밀’

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으로 생산품의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들의 호감도 상승과 대구 농

대구도시철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감사장과 감사패 받아

매월 250만 원, 현재까지 총 2억 1천만 원 후원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환)는 지난 23일 세계 어린이의 생존 보호를 위한 유니세프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로부터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았다.

공사는 지난 2013년 철도유관기관 및 지역 공기업 중 최초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후원 협약을 맺고 전 세계의 고통받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기금 조성에는 2,200여 명의 직원이 ‘전원의 행복’이라는 콘셉트로 참여해, 매월 250만 원(연간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후원한 금액은 총 2억 1천만 원이다.

홍승환 사장은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유니세프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제15회 D-ECO 환경사진 공모전’ 연장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성웅)이 ‘제15회 D-ECO 환경사진 공모전’의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한다.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환경도시’ 대구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일반사진 부문(드론사진 포함) 외에도 스마트폰 부문을 공모해 대구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당초 10월 23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야외활동이 감소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11월 20일까지 연장에 11월 하순에 심사 및 결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공단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환경공단 홈페이지(www.dgei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 대구환경공단>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제2회 세대공감 집콕페스티벌 ‘전통속’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관장 김홍수)은 노인의 달 10월을 맞아 지난 22~23일 제2회 세대공감 집콕 페스티벌 ‘전통속’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 주민 모두가 전통문화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으로 22일은 전통문화 동아리 공연 및 대금, 해금 등 전통악기 배움 마당이 진행됐으며, 23일 제기 만들기, 미니 고깔 만들기 등의 체험마당과 ‘십이지신 달성군 유람기’ 퓨전 마당극 초



창공연이 진행됐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달성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행사를 통해 하루빨리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달성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축하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은 아동, 청년, 노인이 함께 소통하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대구의 무형문화재 한자리에 모인다

‘2020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제祭典’ 11월 1일까지 수성아트피아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 종목 보유자와 전수자들의 작품과 공연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2020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제祭典’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성아트피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대구시 무형문화제제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개막행사 없이 무형문화재 기능종목 작품 전시와 예능종목 공연으로 이뤄지며, 시 무형문화재 17종목 전체가 참여해 대구의 무형문화재가 보존·전승되어온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행사기간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와 멀티아트홀에서는 시 무형문화제인 하향주, 대고장, 단청장, 모필장, 창호장과 대구시의 국가무형문화

재인 조각장의 뛰어난 작품 100여점이 전시되며 각 종목 보유자로부터 작품에 대한 설명과 제작기법에 대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특히, 10월 31일과 11월 1일 오후 3시부터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 공연이 펼쳐진다.

- ▶ 10. 31.(토) 15:00~18:30: 천왕메기, 수건춤, 달성하빈들소리 등 7개 예능종목 공연
- ▶ 11. 1.(일) 15:00~18:00: 날땀복춤, 판소리(심청가) 등 6개 예능종목 공연

한편, 이번 무형문화제제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시의 경우 2m 거리두기 범위 내 관람객 입장이 가능하며, 공연 관람의 경우 1일 관람객을 200명으로 제한해 개최될 예정이다.



제16호 '하빈들소리'

- ▶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전체 좌석 수: 1,147석 (1층 719, 2층 428)
- ▶ 용지홀 1층 띄어 앉기 가능 좌석 351석 중 200석만 사용/ 2층 폐쇄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무형문화제祭典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전통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연 문의) 053-341-7755
〈자료제공:대구시청〉

광고문의
053. 572-6000

3D 프린터의 세계

3D 프린터는 정교한 악기부터 거대한 건축물까지 3차원의 입체물을 도안만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이미 상용화되어 생활에 많이 쓰이는 2D 프린터가 앞뒤좌우로만 움직이며 평면의 인쇄를 한다면 3D 프린터는 여기에 상하 움직임을 추가하여 입체의 물건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3D 프린터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또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먼저 만들고자 하는 물건과 쌍둥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D 모델링이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컴퓨터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이며 이때에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물론 이미 모델링 되어 있는 파일(설계도)들도 시중에 있어서 3D 프린터만 있다면 프린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간단한 실습 후에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프린팅 단계는 앞선 단계인 모델링 단계에서 제작한 도안을 가지고 실제로 입체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에는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크기나 세밀함에 따라 걸리는 시간에 많은 차이가 난다. 마지막 단계는 피니싱. 이 단계는 프린팅 단계에서 만들어진 입체물을 정교하게 다듬거나, 색을 입히는 과정이다. 또한 조립이 필요한 경우 이 단계에서 각각을 조립해 완성한다.

사실 3D 프린터는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용도로 처음 개발되었다. 현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부터 산업용품, 의료보조용 기구 등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차세대 기술들은 앞으로 더욱더 넓은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보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중 일부는 3D 프린터와 관련한 새로운 직업을 가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3D 프린터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대학교에서 하는 활용 연수를 신청해 수강하기를 추천한다.

이원욱 객원기자



팔공산 단풍구경 ‘시내버스 이용하세요’

급행 1번 주말 증회 운행
10월 31일~11월 1일, 11월 7~8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됨에 따라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팔공산 지역 주요 시내버스 노선인 급행 1번을 증회 운행한다.

현재 팔공산 지역 방문객을 위해 동화사 방면에는 급행1번, 팔공1번, 갯바위 방면에는 401번 시내버스가 상시 운행 중에 있으며, 방문객 수요가 많은 주말에는 기존 3개 노선 이외에 팔공산 지역 맞춤 노선인 팔공2번을 동대구역에서 갯바위 구간을 왕복운행하고 팔공3번은 도시철도3호선 칠곡경대병원역에서 파계사, 동화사, 갯바위 구간을 왕복운행하고 있다.

- ▶ 팔공2번(동대구역~아양교~갯바위): 3~11월 2대 운행(통정기 1대 운행)
- ▶ 팔공3번(칠곡경대병원~파계사~동화사~갯바위): 3~11월 4대 운행

특히, 올해 급행1번 승객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대비 크게 줄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단풍철이 맞물려 승객수가 지난해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팔공산 단풍이 절정일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넷째주와 11월 첫째주, 11월 둘째주 토·일요일(10월 31일~11월 1일, 11월 7~8일)에 급행1번 노선을 2대 증차(20→22대)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동대구역에서 동화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왕복운행하도록 해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 운행횟수 93회에서 103회로 증회, 배차간격 13분에서 9~11분으로 단축
- ▶ 팔공산 10월 30일쯤 단풍 절정(계이레더)
- ▶ 2020년 팔공산 단풍축제 취소, 산중정당 승시축제(10.30.~10.31.)비대면 시행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안내 홈페이지(businfo.daegu.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추억의 대구역’을 아십니까?

내년 3월까지 ‘철도, 근대를 달리다’ 전 열려
근대기 철도 관련 사진 60점, 유물 등 20점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근대역사관은 자체 기획전시인 ‘철도, 근대를 달리다’를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기획전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초로 경인선이 부설된 이후부터 광복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우리나라에 도입된 철도와 대구역 승객 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자료 60점과 유물 20점이 소개된다. 이 땅에서 최초로 기적소리를 울린 1899년 당시의 증기 기관차 모습 등 초창기 철도 도입과 관련된 희귀한 사진자료를 비롯해 철도 노선이 전국에 깔리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대구 시민과 한 세기 넘게 애환을 같이 해 온 대구역의 옛 모습과 대구역 앞 철

성바위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서울·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역사들과 철도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차림새들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전시 유물로는 우선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엽서 사진들이 눈에 띈다. 목조 2층으로 일본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건립된 대구역은 서울이나 부산, 신의주역과도 비견될 만큼 격식 있는 건축물이었으며, 당시 대전역과 쌍둥이처럼 같은 건물이었다. 증기 기관차에 필수적인 급수탑과 승강장, 당시 대구의 특산품이었던 사과를 하역하는 모습도 엽서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대구와 부



산 간 노선 승차권과 대구역 운행 시간표를 통해 당시 철도의 운행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철도를 통해 확산된 여행 문화를 집약하게 할 수 있는 안내서, 철도 노선표 등도 볼

수 있다. 그 외에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보존 중인 전국의 소규모 역사나 철교들, 급수탑과 각종 기관차와 철도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 우선이지만 당일 방문 관람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김형국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은 “근대기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였던 철도를 주제로 근현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체온 측정, 방역복 착용 등 방역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대명유수지 임시주차장 개방

인근 서부사업소 임시 주차장 개방 운영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상용)은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주간 매주 토·일요일에 시민들이 대명유수지 역사 숲길을 찾았을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을 개방하고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단은 최근 대명유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 및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10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입산부,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소형 셔틀버스를 배치한다. 또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탐방을 위해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요원 등을 지원한다.

※ 개방 5주간 매주 토·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

정상용 이사장은 “대구 시민을 위한 공공업무로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니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환경공단〉

아름다운 우륵공원 ‘시민의 품으로’

강바람이 시원스럽게 불어온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강정보 건너편 고령군 다산면 관촌리에 넓은 고수부지가 있다. 2010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름 하여 ‘우륵문화마당근린공원’이다. 긴 이름만큼이나 길고도 넓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 감쪽 놀았다. 화장실도 갖추어져 있고 군데군데 벤치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조그마한 공연장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멘트 도로도 닦아 놓았다. 드넓은 초원에는 억새와 갈대가 키 재기 하듯이 강가를 둘러싸고 빗 나뭇들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내판은 비바람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는 햇볕에 바래 읽기가 힘들었다. 벤치도 여러 군데 놓여 있었지만 나무껍질이 벗겨지고 시커멓게 변해 앉기가 거북스러웠다. 화장실에는 벌레들이 기어 다니고 화장지도, 손 씻을 비누조차도 눈에 띄지 않았다. 죽은 나무도 군데군데 우두커니 서 있어 보기가 좋지 않았다. 공원으로 조성 되었지만

관리는 부실해 보였다. 자전거 동호인들만 가끔씩 지나갈 뿐, 산보나 소풍 온 시민들의 거의 눈에 띄지가 않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관리가 부실한 공원을 누가 찾은 것인가?

어렵게 통화한 다산면의 담당자는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멋진 우륵공원을 기대해 보기로 하자.

내년에는 아름다운 우륵공원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윤영 객원기자



우륵문화마당근린공원 어느 가을날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139. 대니산 자락 은행나무 네 그루

1) 프롤로그

세상이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 가을 단풍은 도심과 교외의 구분이 없다. 예전에는 이 맘 때면 단풍으로 유명한 산을 찾아 단풍놀이를 즐겼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산을 찾는 단풍놀이를 그만 뒀다. 북적대는 차량과 사람의 공해도 싫었지만, 가까운 도심공원에서 즐기는 단풍놀이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이다. 도심공원에서 즐기는 단풍은 명산에서 즐기는 단풍보다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단풍 빛깔과 공기 속에서 가을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단풍 중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 길이 백미다. 붉은 빛깔 단풍잎과 함께 가을 단풍을 대표하는 노란 은행나무 단풍. 이번에는 우리 고장에서 멋진 황금빛 단풍을 만날 수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 알아보자.

2) 400년 동동서원 은행나무

동동서원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동서원의 랜드마크, 400년 은행나무. 어떤 이는 이 은행나무를 가리켜 동동서원 교목(校木)이라고 한다. 서원이 조선시대 사립중등교육 기관인 학교였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어떤 이는 교목(敎木)이라고도 한다. 은행나무가 유교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은행나무가 서원의 교목이자 유교를 상징하는 나무가 된 것은 유래가 있다. ‘행단(杏壇)’ 혹은 ‘행단강학’이란 고사성어를 보면 알 수 있다.

행단은 중국 산둥성 곡부현 공자묘[사당]에 있는 단이다. 공자는 젊은 시절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노년에는 정치를 떠나 고향 노나라 곡부로 돌아와 저술 활동과 제자양성에 전념했다. 이 때 공자가 큰 은행[혹은 살구]나무 아래에서 제자들과 수업했다 해서 행단강학이란 고사성어가 만들어졌다. 이 고사『장자』「어부」에 나오는 ‘공자가 행단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국 공자묘 행단에 심겨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가 아닌 살구나무라는 것이다. 이는 ‘행(杏)’을 은행나무로 인식한 우리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살구나무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아언각비』「행단」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 행단이란 복숭아 인종 건축 연간[1022년]에 공자의 45세손인 공도보가 조묘(祖廟)를 증수하고 벽돌로 단을 만들고 그 둘레에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에서 행단의 이름을 취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그릇되게 인식하고서, 곧 공자의 사당 뒤편에 은행나무를 불러 심어 행단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은행나무는 암각수(鰐脚樹) 또는 병중목(平仲木)이라 한다.

동동서원 은행나무는 동동서원 사액[1607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한강 정구 선생께서 심은 것으로 전한다. 대부분 은행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는데 비해 동동서원 은행나무는 가지를 좌우로 넓게 벌린 특징이 있다. 또 나무둘레가 400년 수령에 비해 상당히 큰데 이는 낙동강변의 비옥한 토질 때문이라고 한다. 단풍도 다 지역에 비해 늦어 매년 양력 11월 10~15일 경 절정에 이른다.

3) 비탈에 외로이 서 있는 송담서원 은행나무

동동서원에서 구지방향으로 차로 2~3분쯤 가다 보면 좌측으로 도동2리가 있다. 이 마을 뒤편 산 중턱에 대암 박성을 제향한 송담서원이 있다. 이 서원 초입에도 거대한 은행나무 노거수 한 그루가 있다. 키만 보면 동동서원 은행나무보다 더 커 보인다. 그런데 밑둥치를 보면 좀 다르다. 한 그루가 아닌 여러 그루 은행나무가 한데 엉켜 자라고 있다. 원줄기가 죽고 난 뒤 그루터기 주변에서 다시 자란 나무들이라. 그냥 눈으로 봐서는 원 그루터기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수령을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의 나무들은 수령이 대략 100~200년 정도쯤으로 추정된다.

4) 마을신 깃든 범안골 11가지 은행나무

대니산 남쪽 솔레마을 서편에 경주최씨 집성촌이 있다. 범안골·범항골 혹은 호랑동(虎項洞)이라 불리는 마을이다. 호랑동이란 말은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 마을 뒷산이 호랑이가 누워있는 형국이고, 마을은 호랑이의 목에 해당한다하여 ‘범호’, ‘목항’을 쓴 것.

이 마을 앞 도로 변에도 특이한 형태의 은행나무 노거수가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나무 크기가 동동서원·송담서원 은행나무보다 더 커 보인다. 그런데 이 나무 역시 가까이에서 보면 송담서원 은행나무와 같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죽은 그루터기 주변에서 자란 여러 그루 나무들이 서로 엉키듯 성장한 나무이기 때문이다.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는 11그루의 은행나무가 한데 모여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란 이 나무에는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여러 나무가 한 그루처럼 물은 특이한 도련의 은행나무는 원래 한 그루였다고 한다. 지금부터 200년 전 현종과 씨 사당을 짓기 위해 은행나무를 베 후 새순이 많이 나와 자랐다고 하므로 몇 가지인지 모른다. 1981년에는 11그루라고 적혀 있으나 자라면서 새순이 서로 엉켜 붙어 지금은 9그루이다. 높이 29m, 밑 둘레 11m(직경 3.5m), 수관 폭 22x22m 되는 나무 밑에는 인조목 탁자와 의자가 각각 2개 있고, 대리석 제단이 설치되어 동제를 지내는 당산목임을 알 수 있다. (달구벌 문화 4 권류를 찾아서 II, 차성호)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동동서원 은행나무 (2018. 11. 6.)



한천당 종택 은행나무 (2020. 10. 21)

우리네 전통문화에는 목신(木神)을 섬기는 문화가 있다. 나이가 몇 백 년쯤 되는 나무에는 으레 목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한 것. 범안골 은행나무도 마찬가지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향을 사르고 각각의 방식으로 치성을 드리는 탓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은 불공이나 제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5) 한천당 종택 은행나무

현풍읍 못골[지리] 한천당 김굉필 선생 종택 앞에도 400년 수령의 은행나무 노거수가 한 그루 있다. 높이 25m, 나무둘레 5m인 이 나무는 앞서 소개한 은행나무들이 모두 수나무인 것과는 달리 암나무다. 나무의 생장 상태가 좋아 과거에는 매년 5말 정도의 은행을 생산했다고 한다.

6) 에필로그

공통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은행나무. 은행나무 관련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다. 이른바 ‘성전환 은행나무’ 전설이다. 서울 성균관 은행나무, 거창 황산리 은행나무, 강화도 전등사 은행나무 등등. 본래는 암나무였는데 이러저러한 연유로 수나무로 바뀌었다는 전설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성전환’이 아닌 노쇠에 따른 생식능력 퇴화로 설명한다. 그런데 필자가 근무하는 동동서원 해설사 부스 옆에 있는 작은 은행나무가 요즘 좀 이상하다.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맘 때쯤이면 많은 양의 은행알을 달고 있었는데 올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은행알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성전환 은행나무’ 전설이...

목요단상(木曜斷想)

실패를 응원하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예전부터 자주 들어온 말이다.

그러나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패를 자주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치열하면서 각박한 경쟁구조에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 성공을 거두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부족해 보인다. 요즘 아이들의 교육환경 또한 그렇다. 성적 지상주의의 경쟁구도 속에서, 약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한 순간의 실패는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충격을 준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는 청소년도 있다고 한다. 과감한 도전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에서 창조적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모 국책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얼핏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다. 실패가 용인되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실적 위주의 과제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연구결과물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모 국가의 경우 성공률은 훨씬 못 미치지만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은 높다고 한다. 실패를 용인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연구결과물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률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하나라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어찌면 연구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미국의 failcon은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모여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실리콘밸리 기업인의 가져판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핀란드는 2010년부터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해 실패를 응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핀란드 대표기업 노키아의 물락을 잊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가 이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고 있다. 독일 BMW에서는 ‘가장 창의적인 실수’를 포상하는 행사를 갖기도 한다.

온라인 실패박람회가 9월 17일부터 세종시를 시작으로 울산, 전남, 충남, 부산을 거쳐 31일까지 대구에서 열린다고 한다. ‘일어나, 다시 한번!’이라는 슬로건으로 실패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런 행사가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은 실패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곧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움으로부터 성공이 탄생한다. 실패에서 아무런 경험도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실패는 말 그대로 실패로 끝난다. 실패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용인하고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변점식 기자



길을 묻고 답하다

청백리의 표상

중종 때 승지를 지낸 유학자 김정국(金正國)은 지방에 내려가 있는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써서 남기고 있다.

“듣건대 그대의 의식주가 나보다 백배나 낫는데 어찌하여 그칠 줄 모르고 재산을 모으오? 선비에게는 오직 책 한 보따리, 거문고 하나, 벗 한 사람, 신발 한 켤레, 베개 하나, 바람을 통하게 할 창 하나, 햇볕을 쬌일 마루 한 쪽, 차를 끓일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족할 지팡이 하나, 봄 경치 찾아다니 내귀 한 마리만 족한 거요. 이 열 가지가 비록 번거롭기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같은 시절 장필무(張弼武, 1510~

1574)라는 사람이 양산군수로 있을 때 그 곳 병마사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다. 그러나 장필무는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쌀 한 톨 내주는 일이 없었다.

드디어 화가 났던 병마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와 호령했다. “시골 목사 따위가 대관절 무엇일 믿고 감히 내 청을 거절한다 말인가?”

그러자 장필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고향에 두 칸짜리 초가집이 있으니 오직 그걸 믿을 뿐이요.”

잘못한 일이 없으니 아무 때라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면 그만이라는 배정을 말한 것이다. 병마사는 그만 떠썩해져 다시는 부정한 청탁을 못했다고 한다.

연산군 시절의 정봉(鄭鵬, 1467~1512)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정봉은 연산군한테 바른말을 하다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봉이 청송부사로 있을 때 당시 영의정 성희안으로 부터 꿀과 잣을 좀 보내달라는 기별이 왔다. 청송은 석청골과 잣의 명산지였던 것이다.

정봉은 편지를 써 보냈다. “작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

국민연금 Q&A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0년 7월 기준 503만 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민연금이 1355



구용회 강연대학교 교수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하려면?

유대인 가정을 가보면 대부분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이 있을 법한 곳에는 책이 가득 들어찬 책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자녀가 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손쉽게 뽑아 들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직장인 김성민(44) 씨는 올해 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집 구조를 아이에 맞추어 바꾸었다. 앞서 말한 유대인의 집처럼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과 거실장을 방으로 옮기고 아이가 손만 뻗으면 책을 집을 수 있도록 거실 한 쪽 벽면을 아예 책꽂이로 만들었다. 이 책꽂이에는 물론 아이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올바른 독서 습관을 지니도록 부모가 먼저 책 읽기의 모델링이 되자는 결심에서 아이의 눈높이에는 아이의 책 수백 권이, 위쪽 시선이 안 닿는 부분에는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을 배치해놓은 것이다.

독서교육은 이처럼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이가 다들 활동을 하다가도 책 읽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밖에도 부모가 책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함께 구입하는 것도 좋으며 가끔은 책을 서로에게 읽어주는 등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글쓰기나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고 글을 쓰는 기회를 갖게 되면 어휘력뿐 아니라 논리력, 창의력 등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난 뒤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고 싶다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reading.edunavi.kr>)을 활용한다.



특히 다른 학생들이 자신과 같은 책을 읽고 남긴 독후 활동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어 생각을 비교하며 독서 토론방, 독서 동아리, 추 천 독후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옥 객원기자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달성군립도서관, 독서 중요성 강조

가을은 천고마바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이다. 이 계절에 도서관을 찾아가 보자.

요즘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있다. 작은 문화공연이라든지 작가와의 만남이나 문화강연 등 많은 이벤트성 행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2020 북스타트 부모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달 27일부터 11월 17일 까지 매주 화요일 10시

부터 12시까지 총 4회 진행된 다. 이번 행사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해와 아이들의 독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7일 1회차에는 ‘할머니의 정원’, ‘엄마 도자기’ 등의 저자(자) 중학교 교사로 활동한 백화연 작가가 ‘우리 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11월 3일 2회차에는 ‘뇌가 좋은 아이’,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

친다’ 등의 저자이자 KBS 플러스 기획제작 부장 PD 신상욱 작가가 ‘뇌 발달과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11월 10일 3회차에는 그림책 테라피 연구소장 황진희 소장이 ‘영유아 그림책과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 강연하며, 마지막 11월 17일 4회차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 이’, ‘국경없는 마을’ 등의 저자이자 예술 프로젝트 ‘빛나 는 순간’의 박채란 대표가 ‘그림책으로 발견하는 우리가 이 예술성’을 주제로 강연한다.

더불어 달성군립도서관은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도 실시하고 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친환경 소재의 가방 안에 그림책 2권과 부모를 위한 책 읽어주기 가이드북이 들어있는 구성으로 1단계 (2018~2020년생), 2단계(2016~2017년생)로 구분하여 소진될 때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대상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이어야 하며, 해당 아동의 도서관 회원증과 등본(3개월 이내 발급), 부모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53-584-0285나 홈페이지 (www.dalseonglib.kr)를 참조하면 된다.

달성군립도서관 남경아 사



서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재훈 객원기자

신흥초 ‘꿈을 찾는 티켓, 진로캠프’ 열려

대구신흥초등학교(교장 현상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격, 강점, 약점을 알아보고 진로와 직업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꿈을 찾는 티켓,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꿈을 찾는 티켓, 진로캠프’는 자신의 성격이나 다중지능에 대해 탐색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 진로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했다. 저학년과 중학년은 성격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유형에 따른 직업의 관련성을 이해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자신의 성격과 어울리는 진로를 생각해보고 더 그걸에 자신의 꿈을 이미지화하여 진로를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5, 6학년은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 나의 강점지능과 약점지

능을 발견해보고, 다양한 다중지능 게임을 통해 자신의 강점지능에 대해 깊이 탐색하였다. 또 자신의 강점 및 자신의 관심사를 커리어 인형 및 커리어 트리 이미지화 하고, 미래의 나를 소개하는 명함 종이액자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나의 강점지능에 대해 깊

이 탐색해 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나의 강점에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상환 교장은 “초등학교 진로교육 목표에 어울리는 자기 이해 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료제공 신흥초등학교〉

광고문의
053.572-6000



습관처럼 거짓말과 욕을 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까?’

내 자녀의 언어습관 지도

중학생 딸을 둔 서미지(40) 씨는 우연히 딸의 친구들 여럿이 모여 개설한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다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알던 딸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딸 끝마다 욕은 예사고 비속어가 들어가지 않은 말들이 거의 없었다.

교직 4년 차 정인옥(29)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지도하면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 아이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 야단을 쳐도 거짓말을 하며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답답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코치를 해도 야단을 맞을까 봐 거짓말부터 해요. 결국 진실을 말하도록 증인, 목격자까지 찾아 캐물으면 그때 되어서야 거짓말은 인정하지요” 아이가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우선 욕은 또래와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한 또래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 욕을 한 친구를 꾸짖다 이유를 물어보면 욕을 안 하면 괜히 친구 무리에서 소외된 것 같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또한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공격성의 또 다른 표현이 욕이라고도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욕을 줄이거나 없애려면 아이가 공격본능을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땀을 흘리는 운동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아가 욕을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예의 바른 학생은 욕을 하지 않아, 난 네가 예의 바른 학생으로 자라기를 바라거든” 과 같이 부모의 가치관을 담아 한결같이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는 일단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보통은 대부분 관심을 끌기 위함이거나

야단을 맞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때로는 거짓말을 통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복수심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비교적 명확하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자녀와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것이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거짓말은 줄어든 것이다. 또한 거짓말은 심리적인 원인이 크므로 도덕적인 죄책감을 심어주기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어떤 상황에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고나서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하다보면 저절로 깨닫고 고쳐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원옥 객원기자

대구학생문화센터 뮤지컬 갈라콘서트 ‘This is me(이제 바로 나야)’ 공연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강형구)는 대구교육공동체를 위해 11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하는 기획공연인 ‘뮤지컬 갈라 콘서트 ‘This is me’ (이제 바로 나야)’의 관람신청을 11월 3일 오후 2시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http://www.dge.go.kr/dccs)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공연은 대구학생문화센터와 대구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이 상생협력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연의 연출을 맡은 정효진 씨는 공연 제목인 ‘This is me(이제 바로 나야)’는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의 대표적인 OST로 ‘나다움을 잃지 말자’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정효진(Bella.J), 박지훈, 손현진을 비롯한 지역의 유명 한 뮤지컬 가수들과 T:one(티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댄서 이지원을 비롯한 실력 있는 댄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공연무대를 신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준비되어 있다. 뮤지컬 ‘지킬 앤하이드’의 ‘지금 이순간’,



‘프랑켄슈타인’의 ‘너의 꿈속에서’,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 ‘맘마미아’의 ‘Dancing queen’, ‘몬테크리스토’의 ‘언제나 그대 곁에’ 등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컬 곡들을 준비했다.

공연단체 EG뮤지컬컴퍼니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상주단체로 2020년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뮤지컬 ‘You&It’ 공연을 선보이고, 오는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대구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문화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은새미로’를 오는 12월 23~24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상세

내용은 학생문화센터 기획공연담당 ☎231-13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형구 관장은 “예술지원사업을 통해 EG뮤지컬컴퍼니와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대구 시민들에 많은 사랑을 받는 장르이니 만큼 이번 공연을 통해 침체되어있던 공연무대가 더욱 활성화되고, 대구 교육가족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학생문화센터〉



달성문화재단,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공연

달성문화재단(이사장 김문오)은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인 육신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공연을 개최한다.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총 5회로 11월 19일 오후 3시, 20일과 21일 각각 오후 3시, 7시에 진행된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 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을 최초로 공연한 바 있으나 2020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제작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완성도 높은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달성문화재단은 대구시립극단 수석 단원을 역임

하고 현재 지역에서 연극, 오페라, 뮤지컬 분야의 연출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은환 씨와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하고 대구시 문화상을 수상한 김재만 씨를 각각 연출가와 제작감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뮤지컬 제작에 착수했다.

육신사는 조선 세조 2년(1456년)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숨진 여섯 명의 충신(박팽년, 성삼문, 이계,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인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사육신 중 유일하게 후손이 살아남은 박팽년의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순천 박씨 집성촌인 이를 위해 달성문화재단은 대구시립극단 수석 단원을 역임

하고 현재 지역에서 연극, 오페라, 뮤지컬 분야의 연출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은환 씨와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하고 대구시 문화상을 수상한 김재만 씨를 각각 연출가와 제작감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뮤지컬 제작에 착수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 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을 최초로 공연한 바 있으나 2020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제작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완성도 높은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달성문화재단은 대구시립극단 수석 단원을 역임

예매가 가능하다.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다.

달성문화재단 서정길 대표이사는 “충효의 고장 달성군에서도 육신사가 위치한 묘골마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삼가원(三可軒), 육신사 경내 오른쪽에 자리한 보물 제554호 태고정(太古亭),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2호 도곡재(陶谷齋)가 묘골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이곳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달성문화재단은 순천

박씨(중천회 회장 박창순) 문



중을 특별히 첫 회 공연에 초청해 사육신의 올곧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의: 달성문화재단 (053-659-4294)

〈자료제공·달성문화재단〉

프로포즈 명당

송해공원 ‘프로포즈 존’

달성군(군수 김문오)의 관 광명소인 송해공원이 ‘더브터널’ 입구에 설치된 프로포즈 조형물과 함께 프로포즈 명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조형물은 지난 10월 4일 성료된 ‘2020 달성대구현대미술제’에 출품된 김병규 작가의 ‘프로포즈’로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을 형상화해 미술제 내내 관람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다. 달성군은 이 작품을 송해공원의 ‘더브터널’ 입

구에 설치해 ‘프로포즈 존’을 조성했다.

멀리 보이는 옥연지의 물결과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들을 배경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남녀의 다정한 형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사랑의 설레임을 느끼게 하고 있다. 벌써 프로포즈 명당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젊은 연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 아련한 프로포즈의 설렘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중장년층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프로포즈 존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국화 향기 가득한 송해공원의 프로포즈 존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달성문화재단〉

달성군 문화센터 재개 및 강좌 추가 접수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은 임시휴장 중이었던 문화센터(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가 이달 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급감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상 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센터는 정원을 50%로 제한해 일일 자유수영, 헬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으며, 가을학기 문화교육강좌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추가 강좌는 직장인을 위한 저녁 강좌, 수강생 수요가 높은 강좌 위주로 선정했으며, 추가개설 강좌는 11~12월, 2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강순환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코로나 불루를 겪는 고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온라인 연극에 빠지다 ‘Fall in 달서 청년 연극제’

DSAC Online 문화가 있는 날 기념공연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가 선보이는 ‘온라인 연극 축제, Fall in 달서 청년 연극제’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웃는얼굴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50여개의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를 보유한 웃는얼굴아트센터의 DSAC Online ‘슬기로운 문화생활’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더욱 다양한 작품을 지역민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순수예술에서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

보이는 예술축제 DSAC 아트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Fall in 달서 청년 연극제’는 ‘연극 도시’ 대구를 알리고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웃는얼굴아트센터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대구시 지회가 주관하는 청년 연극제(예술감독 최주환)로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최근 ‘2020 지역문화예술화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아 진행되는 등 ‘Fall in 달서 청년 연극제’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화관연합회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화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지역 밀착 맞춤형 공연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보일 3편의 창작극 ‘용고집전’, ‘인간 증후군’, ‘Lift the Veil’ 모두 사

업에 선정됐다.

공연을 준비한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지역 연극의 미래가 될 젊은 연극인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연극협회와 함께 청년 연극제를 준비하였다”며 “신선함과 다양한 시도가 있는 온라인 연극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11월 기획공연 예정

- ▶11. 11(수) 2020 가곡열전
- ▶11. 20(금) 달서구립합창단 정기공연 (26일 2시 티켓오픈)
- ▶11. 25(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26일 2시 티켓오픈)
- ▶11. 28(토) 콘서트7080, 헤은이/MUJIN팝스밴드 (23일 2시 티켓오픈)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웃는얼굴아트센터dsac>

서양화가 강요배 ‘제21회 이인성 미술상’

대구미술관(관장 최은주)은 이인성 미술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홍순명, 제17회 수상자/전업작가) 개최 결과, 서양화가 강요배(姜堯培)를 ‘제21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11월 4일 대구미술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인성 미술상은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대구, 1912~1950)의 작품 세계와 높은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대구시가 제정한 상이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한국 현대미술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 작가들의 역량과 수상 자격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홍순명 심사위원장은 “일관되게 회화작업의 길을 걸어온 강요배 작가는 회화매체의 확장과 깊이를 더하며 밀도 있는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라며 “오랜 시간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시대와 역사에 충실하고 다양한 화풍의 변모를 추구하는 그의 예술세계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강요배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제주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학교재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소노마 카운티뮤지엄,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제20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초대전 ‘조덕현-그대에게(to the)’와 이인성미술상 20주년 기념 특별전 ‘위대한 서사’ 개막과 함께 개최하며, 수상자에게는 이인성 미술상 상금 및 상패와 이듬해 대구미술관 개인전 개최 및 온·오프라인 다양한 홍보를 지원한다.

〈자료제공:대구미술관〉



DSAC 시그니처 첫 주인공 ‘국카스텐 / 디어클라우드’

웃는얼굴아트센터 10월 31일 오후 7시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의 특별한 기획공연 DSAC 시그니처 시리즈 첫 번째 공연 ‘Rock on Stage 국카스텐X 디어클라우드’를 31일 토요일 오후 7시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한다.

올 해 첫 선을 보이는 DSAC 시그니처 시리즈는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 및 단체를 초청하여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는 웃는얼굴아트센터만의 시그니처 시리즈이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차례 공연이 연기되었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Rock on Stage’로 준비된 DSAC 시그니처 첫 번째 공연은 북면가왕 최다 연승 기록자이자 국내 최정상 보컬리스트

하현우가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록 밴드 ‘국카스텐’과 3인조 모던 록 밴드 ‘디어클라우드’가 출연하여 10월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디어클라우드는 마음의 상



처를 위로와 공감으로 치유하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지닌 모던 록 밴드이다. 2007년 정규 앨범 1집을 발표하고 레이블 Cloud Records를 설립하였고, 2010년 EP앨범 ‘Take The Air’를 발표하면서 디어클라우드만의 색채를 잘 드러내며 호평을 받았다.

국카스텐은 경이로운 음악대와 폭발적인 사운드, 유일 무이의 앞도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보컬리스트와 몽환적이고 싸이키델릭한 사운드로 중무장한 밴드다. 2007년 데뷔부터 록음악계의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아 다수의 콘서트 우승과 유명 음악방송 출연을 계기로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밴드인 국카스텐은 록

밴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한국 음악계의 틀을 깨고 국민밴드로 태어났다. 국카스텐은 독일어로 고대 중국의 만화경을 의미하며 만화경을 들여다볼 때 펼쳐지는 아놀로그한 느낌 속에 숨어있

는 사이키델릭한 이미지처럼 음악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실험정신을 모티브로 하는 한국의 대표 싸이키델릭 밴드다.

이번 공연도 티켓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 좌석이 매진되면서 그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11월에도 DSAC 브랜드 콘서트 ‘2020 가곡열전’과 ‘콘서트7080, 헤은이 X MUJIN팝스밴드’ 등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올해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대구 최대 규모 자치구인 달서구에 걸맞은 아트센터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정상급 기획공연 개최 및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시그니처 시리즈를 마련했다”며 “대면공연도 활발하게 진행해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아트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달성군, 국화전시회로 가을 정취 가득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대구수목원과 연계해 주요 관광지인 옥연지 송해공원, 사문진주막촌에 국화전시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 풍경을 만끽하고 있다.

대구 수목원에서 분양받은 국화모형작품(전통 혼례 신랑·신부, 팔도지도 등) 70점과 국화 500본,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현애국 등 3,500본을 활용, 도심에서 가까운 주요 관광지에 아름다운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화전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열린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가이드라인)’ 발간
비만 예방 홍보(캠페인) ‘건강생활실천 영상공모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걷기 활성화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난 26일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가이드라인)(이하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성인비만율 ‘14년 30.9%→’18년 34.6%)하고 신체활동은 감소(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14년 58.3%→’18년 47.6%)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신체

활동을 줄이고 비만을 증가시킬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03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9%는 “코로나 전에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42.1%는 코로나 이후의 생활변화에 대해 “체중증가”라고 답했다(‘건강투자 인식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걷기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천할 수 있다.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 위험 감소, 비만 위험 감소, 8대 암(유방·대장·방광·자궁내막·식도·신장·폐·위암) 및 심장병·뇌졸중·치매·당뇨병 등 질환 발생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 또한, 걷기는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도

효과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신체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걷기 가이드라인은 걷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위원장:강재현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걷기 가이드라인은 성인에게 필요한 걷기량, 올바른 걷기방법, 걸을 때 주의사항 등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걷기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걷기 권장량: 1주일에 최소 빠르게 걷기(중강도 신체활동/걸으면서 대화 가능하나 노래는 불가능) 150분 혹은 매우 빠르게 걷기(고강도 신체활동/걸으면서 대화 불가능) 75분을 권장한다.

빠르게 걷기와 매우 빠르게 걷기를 섞어서 실천할 경우 매우 빠르게 걷기 1분이 빠르게 걷기 2분임을 인지하고 걸으면 된다.

▶올바르게 걷기: 올바른 걷기 자세와 걷기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고자 했다.

걷기 자세, 발의 동작, 걸음 길이, 팔 동작 등은 걷는 속도나 에너지 넘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좌우한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심호흡이 가능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며 허리나 골반의 통증을 방지할 수 있다.

(1) (시선) 10~15m 전방을 향한다.
(2) (호흡)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3) (턱)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긴다.
(4) (상체) 5도 앞으로 기울인다.
(5) (팔)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린다. 팔꿈치는 L자 또는 V자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린다.
(6) (손) 주먹을 달걀꼴된 모양으로 가볍게 쥔다.
(7) (발) 골개 세우고 어깨와 가슴을 쏘인다.
(8) (발바닥) 넓히며 흔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9) (다리) 실릴자로 걸어야 하며 무릎사이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걷는다.
(10) (발꿈치) 발뒷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이동시킨다.
(11) (목) 자기 키(cm)-100 혹은 자기 키(cm)에 0.45를 곱하고 목목을 일정한 길이 유지한다.



걷기 전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시하며, 걷기를 시작할 때는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높이고 걷기를 끝낼 때는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간 거리(2m)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이 어려운 경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잠시 벗고 휴식을 취하기 등의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걷기를 당부드린다. 버스·지하철 이용 직장인은 미리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기, 걷기 친구 만들기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걷기 가이드라인 책자와 영상(가이드라인 교육영상 1종, 실신체활동 교육영상 3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변화를 주제로 ‘건강생활실천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여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고자 한다.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실천에 관심 있는 누구나(내외국인, 남녀노소, 개인/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고, 2020년 10월 26일(월)부터 2020년 11월 15일(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high-five.kr)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동성로 ‘보행안전 분야’ 전국 표준모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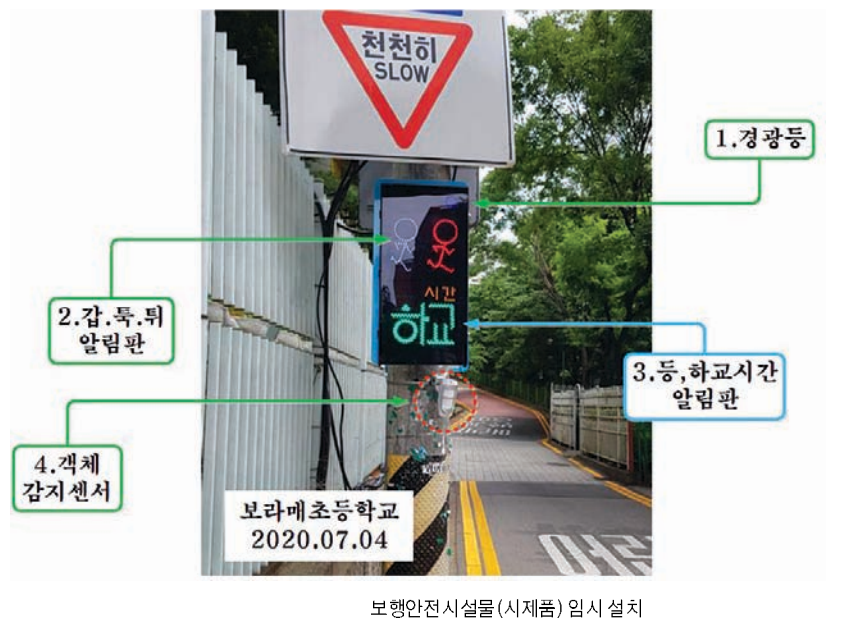
4차 산업 기술 테스트베드 선정, 보행자 위험 사전 예측 및 개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보행사고 예측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대구 동성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기술개발과 리빙랩 실증을 위해 전국 11개 지역을 기술개발사업의 후보지로 압축 후,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결과 대구 동성로와 경기 수원시 2곳을 기술개발사업 테스트베드로 최종 선정했다.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은 11월부터 동성로에 라이다 센서 등이 장착된 특수장비 등을 투입해 보행 여건 등을 조사·수집하게 되며, 수집된 빅데이터는 영상 해석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도출 후 위험 요인별 개선 기술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며, 실증 후 보행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국비가 지원된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으로 동성로가 보행안전 분야 4차 산업기술에 있어 전국적인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달성군보건소 지역 보건의 롤모델이 되다

첨단시설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둔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이전 신축으로 새롭게 출발한 대구 달성군보건소를 찾는 기관 및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달성군 보건소는 ‘테마에서 전국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입산부에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 치매 어르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하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문턱을 낮춰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게 지역주민

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교육·체력 후 바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실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보건소〉

돌봄 걱정과 코로나 블루 모두 떨쳐

달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힐링 나들이’

달서구(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 치매환자 및 가족 20여명과 함께 대구수목원과 월광수변공원으로 가을맞이 ‘힐링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런 나들이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오감만족 숲 체험’을 주제로 하여 숲 길 걷기, 자연 속 향기 찾기, 낙엽 촉감 느끼기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자연물을 활용한 치매가족 ‘소망나무’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치매환자 돌봄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돌봄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치매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형성했다. 달서구치매안심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치매안심센터 유튜브 채널 개

설, 비대면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 나들이에 참여한 송모씨는 “최근 집에만 있어 힘들었는데 치매 아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간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자료제공:달서구치매안심센터〉



11월 2일 ~ 8일

재미로 보는 음세



36년생 어린 사람과 닮으면 손해를 본다. 48년생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구설수를 조심하라. 60년생 자신을 낮추고 근신해야 일이 풀린다. 72년생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현상유지가 중요하다. 84년생 조금만 참으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96년생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을 위해 충분히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37년생 그동안의 선행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49년생 잘못된 일을 빠르게 고치니 운이 열린다. 61년생 돈은 나가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 73년생 재연을 세우려다가 돈만 나가게 된다. 실수를 따져야 한다. 85년생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된다. 97년생 호기심이 지 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8년생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한다. 50년생 누군가와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긴다. 62년생 어려운 일을 피하고 사람들과 화합한다. 74년생 뒷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된다. 86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98년생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39년생 어린 사람과 닮으면 손해를 본다. 51년생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구설수를 조심하라. 63년생 자신을 낮추고 근신해야 일이 풀린다. 75년생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현상유지가 중요하다. 87년생 조금만 참으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40년생 손해 볼 일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받기만 하면 된다. 52년생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서둘러야 좋은 성과를 얻는다. 64년생 다소 경제적인 손실은 있지만 명예를 얻게 되는 운이다. 76년생 남을 도울 때에는 조건 없이 도와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88년생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4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 쓸데없이 끼여들지 말라. 53년생 대인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귀인이 나를 떠나게 된다. 65년생 사사로운 인정에 매달리면 괴로워지니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라. 77년생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다. 89년생 자신의 실수를 빨리 인정해야 한다.



42년생 니중을 위해서 기력을 보충해야 할 시기이니 나서지 말라. 54년생 생활의 여유가 생기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66년생 거래자가 바뀌고 이력사람과의 교류도 없어질 수 있다. 78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주변의 인심을 얻게 된다. 90년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니 인기가 상승한다.



43년생 멀리 내다보고 큰 것을 바랄 때 원하는 것을 이룬다. 55년생 공동투자를 하거나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67년생 험한 일을 스스로 피해야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79년생 뒷사람이 벌인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되니 바쁜 시기이다. 91년생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행운이 찾아온다. 움직여야 한다.



44년생 하늘이 돕는 운이니 생각지도 못한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 56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 흉한 일도 길하게 변할 수 있다. 68년생 뒷사람의 신임을 받게 되니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80년생 실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과로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92년생 규모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큰 기회가 다가온다.



45년생 무엇을 하든지 뒷날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 57년생 자존심을 조금만 버리면 일이 잘 풀린다. 69년생 이력사람에게 친절하면 도움을 받게 된다. 81년생 일이 잘 풀리니 편안하게 지내게 된다. 93년생 너무 열심히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6년생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나날 수 있다. 58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에 충실 하라. 70년생 남 좋은 일을 해야 하니 공명을 탐하지 말라. 82년생 작은 욕심으로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94년생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곧 다가온다.



47년생 무리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큰 이익은 없지만 작은 이익은 반드시 찾아오니 노력해야 할 수 있다. 71년생 거창한 계획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 눈앞의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83년생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니 어렵지 않다. 95년생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변화를 주게 되면 사기를 당할까 두렵다.

제공: 당신의 멘토, 운조아 (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10월 29일 목요일	최저 4℃ 최고 18℃	10월 30일 금요일	최저 4℃ 최고 18℃
10월 31일 토요일	최저 5℃ 최고 19℃	11월 1일 일요일	최저 8℃ 최고 18℃
11월 2일 월요일	최저 10℃ 최고 17℃	11월 3일 화요일	최저 4℃ 최고 14℃



시시상식 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제7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동법 제69조 제2항). 아울러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제73조),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자선·종교·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내버리지 않음] 시시상식 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퍼즐



제996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납품과제를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 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 정답자 발표 : 1,144호

994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자동차극장 관람권 1매 ☎ 984-8008
배건후(북구 관음로) / 권경락(달서구 이곡동)

휴림원
이용권 2매 ☎ 585-0100
이저생(달서구 이곡동)

미과 **SPOLLEX**
고품질 원티니스 들림 스퀘시텔스/원티텔스/원티텔스/원티텔스
이용권 2매 ☎ 593-9990~8
김병원(달서구 용산동)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네이처파크
Trees & Water teaching house
이용권 2매 ☎ 608-5000
정성영(달서구 와룡로) 이흥선(달서구 월배로) 이형우(달서구 성서로) 김형원(달서구 본리동) 이흥현(달서구 감삼동) 권기현(달서구 다사동) 서영숙(달서구 용산동) 이승철(달서구 다사동)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가로열쇠>

1.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바 작책이나 임무. 각자 맡은 바 ○○을 다하다.
2. 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 택시 운전사에게 ○○○○ 받는 것을 잊었다.
3. 카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4. 칠레의 수도.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 해발 520미터의 고원에 있는 도시.
5. 독일의 사인이며 작가인 괴테가 지은 서간체 소설인 '젊은 ○○○○의 슬픔'은 남의 약혼녀를 사랑하다가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에 들어갈 주인공 이름.
6. 값어치가 없어 버려도 아깝지 아니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약속을 ○○○○이여기다.
7.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8.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나뭇잎이나 풀, 흙도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이 된다.
9. 학교에서 학생들이 임도록 정한 제본.
10. 뚝딱이 없는 말이나 행동. 그의 말이 전혀 ○○○는 아니었다.
11.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체계.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 지속적인 ○○○이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다.
12.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다른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

<세로열쇠>

1. 환경남도 태생으로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로 불렸던 인물.
2. 옹공나무와 밤나무를 붙여 만든 장방형의 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 만든 여섯 개의 줄이 걸려 있는 우리나라 현악기.
3. 에스파냐의 작가 세르반테스 사야베드라가 지은 소설. 과대망상에 빠진 주인공 ○○○○가 부하 산초 판사와 여러 가지 모험을 겪는 내용이다.
4. 마음에 걸려서 꺼림칙하게 생각됨. 양친에 ○○○을 느끼다.
5. '하루 데'를 비하해 이르는 말. ○○○에도 소용이 없다.
6. 배개의 겉을 덧씌워 치는 형질.
7. 14~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
8.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기녀, 무속, 술집을 소재로 한 풍속도를 많이 그렸다. 작품에 '미인도' 등이 있다.
9. 주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곳.
10. 사람 수를 줄임. 또는 그 사람 수.
11. 행정 행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12. 혈육으로 볼 때 가까운 사람. 보통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쓴다.
13. 일이나 사물이 형용어처럼 감정을 줄 수 없을 만큼 결단이나 거나 아쉬운 상태. 그동안 돌보지 못한 수박밭은 ○○○이 됐을 게 뻔하다.
14. 가계, 살레, 기구를 장기간에 걸쳐 임대하는 제도.

<994회 정답>

지	시	세	울	배
자	그	마	지	막
재	미	리	마	지
옛	그	제	더	부
자	심	실	길	
아	프	리	카	할
렛	레	머	텔	루
사	람	니	마	니
람	트	헝	크	이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www.prsinmun.co.kr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 발행처 미디어프린팅넷(株)
▶ 발행인 조경래
▶ 편집인 조경래

☑ 운영계좌안내
대구은행 002-08-073 862-4
국민은행 680-24-0070-047
농협 794-02-235 282
예금주: 푸른신문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푸른방송 케이블TV는 채널, 가격은 그대로! 장비 없이 즐기는 고화질 HD방송!

푸른방송 HD케이블TV + 인터넷

월 11,500 원 (부가세 포함, 현대백화점 제휴카드 월 1만원 이상 결제시)

무선방송 신규 고객 1개월 무료 **8,800 원**
푸른방송 가족 5명 시 14만원으로 신규 고객 5명 시 14만원 무료 혜택 **8,800 원**
방송방송 제휴사 월 5,000원 할인 **5천원 할인**
한정기간 한정 혜택 **4천원 할인**

푸른방송 디지털케이블TV + 아날로그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 전화

가입문의 **551-2000** www.gcs.co.kr

함께 하는 즐거움

웃음과 감동주는 **씨네80 자동차극장**

CMC TV 디지털: 57 아날로그: 37-1

CMC family

1588-0669 www.cmctv.co.kr